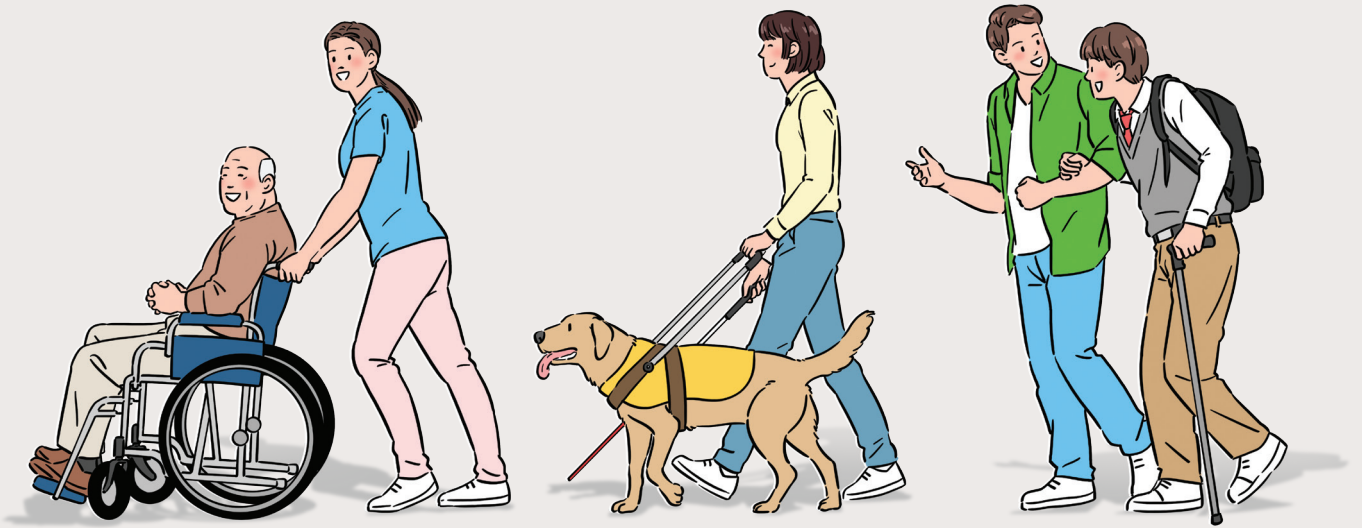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꿈꾸며...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한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되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가 많은 사람에게 각광받을 수 있는 것은, ‘우영우’라는 캐릭터의 매력과 흥미 있는 드라마 소재가 큰 몫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우영우’라는 인물이 더 의미 있는 캐릭터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 ‘우영우’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살아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역할을 하는 우영우를 보며 드라마에 더 흥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드라마의 이야기처럼 장애인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특수교육과 함께한 저의 이야기와 앞으로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 함께 한 날들...

특수교사였던 제가 학교 현장을 떠나 교육연구사의 전문직에 발을 디딘 건 2008년이었습니다. 한국복지대학에서 연구사 활동을 시작해 2년 뒤 교육부로 자리를 옮겨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연구사, 연구관, 과장 등의 직을 수행였고 지금은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금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이 장애학생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 함께 할 날들... 그리고 우리의 숙제

특수교육의 최종 목표는 장애학생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은 어릴 적부터 비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며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기의 아이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지지 않는다.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건 어른들이다.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 서로에 대한 편견이 없어진다. 서로의 다름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장애를 넘어 다문화와 한부모 가정 등 모든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은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주소를 보면 장애학생들의 72.8%가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더하여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통합을 지원하는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통합학급 운영의 내실화, 통합교육 교수학급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비록 통합교육이 중요하고 많은 대다수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학생의 장애 정도나 교육적 요구에 따라서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장애는 점점 중도·중복화되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도·중복화되어 가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 방향 및 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 중인 교육과정은 2022년 12월에 고시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입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이래 처음으로 비장애학생의 교육과정인 초·중등 교육과정과 동시고시를 준비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성격을 확립하여 특수학교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새롭게 적용될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주요 내용

❶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 (현행) 대안형 교육과정 → (개정)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성격 확립
-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와 교사가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수준을 적정화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유연성 확보
 - (현행) 교과(군)별 30% 범위 → (개정)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 가능

❷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중심 교육활동을 위하여 일상생활 활동 신설
 -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 적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
 - (현행)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 (개정)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제
 -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과별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적정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제시

❸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재학 학생의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 시·도교육청의 통합교류(일반 학교, 지역사회 등) 지원 근거 마련
 - 개별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초점을 맞춘 (현행) 교과 중심 → (개정) 교과 또는 생활지원 영역 중심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 지원 사항 마련

❹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 다양한 배치 환경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 (일반 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공통 교육과정 접근 최대화를 위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활용
 - (특수학교)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하거나 중복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 병행
 - (순회교육)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시 학생의 배치 환경, 교육적 요구 고려

⑤ 장애학생의 진로와 과목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와 과목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 (현행) 특수학교 전문교과(직업, 이료) → (개정) 특수교육 전문교과(직업·생활, 이료)로 재구조화
-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 신설 및 과목 전환
 - 사회적응(1개 과목) 신설,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농인의 생활과 문화(2개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과목으로 전환

⑥ 특수교육 유치원 교육과정 개선

- 유치원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하여,
 -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의 인간상 제시
 - 장애가 심하거나 중복된 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시간 및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운영 지침 마련


특수교육을 위한 약속

새로운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장애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시스템 구축, 교수학습자료 등 새 교육과정에 맞는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장애학생에 맞는 교육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도록 교과용 도서 개발, 교사 연수,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은 온 국민이 함께 힘든 상황이었고 특히 장애 학생들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학습을 이어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장애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이러한 노력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와닿을 수 있도록 시작 단계

부터 가정, 학교, 사회 많은 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서 장애를 이유로 소외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에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 및 개발,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특히 교육에 관한 권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 되지 않도록 장애학생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은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필자 소개

1994년부터 특수교사로 근무하다가 2008년에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여 한국복지대학 교육연구사, 교육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특수교육정책 과장직을 수행하였다. 현재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원장직을 수행하며 장애 학생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